



ABC제도 정착과 향후 과제



임호균 | 한국광고주협회 사무총장

지난 12월 14일 한국ABC협회는 전국 119개의 일간신문사의 발행 및 유료부수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ABC협회가 세계ABC연맹(IFABC)의 기준에 따라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신문의 통합 부수를 발표한 것이다.

우리 협회는 ABC제도 정착의 필요성과 매체 가치가 광고 요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런 점에서 한국ABC협회의 이번 통합 부수 공개는 광고산업 및 매체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ABC제도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쇄매체의 앞날은 그리 밝지 못하다. 최근 급속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한 매체의 환경 변화 및 소비자들의 뉴스 소비행태 변화는 인쇄매체의 경영난을 야기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를 인쇄매체의 포맷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재의 디지털 환경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다수의 유명 매체들은 종이인쇄판 발간을 중

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80년 전통을 자랑한 미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작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인쇄판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판만 운영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인쇄매체의 위기를 깊이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뉴스위크의 경우 인쇄매체 발행으로 인해 연간 약 2천만 달러(약 200억)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또한 영국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도 종이신문 발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인쇄매체 독자의 감소는 곧 영향력 하락과 인쇄매체의 가장 큰 수익원인 광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인쇄매체의 위기는 결국 기존 ABC 부수공사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보완과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지 신문이 발행되고 배포되는 수량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는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 인쇄매체 발행을 중단하고 온라인 매체로 전환한 해외언론사

매 체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위크 : 2012년 12월 31일자 후 인쇄판 중단 •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 : 2008년 인쇄판 중단 •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 2009년 인쇄판 중단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프리빈 : 2012년 1월 30일자 후 인쇄판 중단 • 프랑스수아르 : 2011년 12월 13일자 후 인쇄판 중단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블리코 : 2012년 2월 24일자 후 종이신문 폐간



• 2011.1~12월 전국일간지 인증부수(43개지)

(유료부수 순)

매체명	발행부수	유료부수	매체명	발행부수	유료부수
조선일보	1,799,166	1,353,159	헤럴드경제	56,919	32,523
중앙일보	1,300,354	943,860	아시아경제	35,734	24,352
동아일보	1,198,069	749,792	The Korea Herald	34,288	21,687
매일경제	900,135	580,001	파이낸셜뉴스	36,369	22,059
한국경제	504,230	348,259	KOREA JOONGANG DAILY	19,687	15,688
농민신문	302,545	297,466			
스포츠포스트	318,256	246,757	천지일보	23,861	14,014
한겨레	280,906	210,721	스포츠월드	48,226	13,653
경향신문	246,798	187,384	THE KOREA TIMES	20,640	13,373
일간스포츠	261,701	181,384	건설경제	20,000	13,228
한국일보	282,424	174,797	아시아투데이	16,118	10,716
국민일보	228,102	145,494	디지털타임스	21,290	10,077
문화일보	172,933	135,006	전국매일신문	17,885	8,656
스포츠서울	212,842	133,763	아주경제	12,797	8,459
스포츠동아	192,680	123,215	아주경제중국어판	18,547	8,444
서울신문	162,923	113,281	이투데이	20,000	5,978
스포츠경향	87,904	60,004	신아일보	10,620	5,078
세계일보	83,965	59,133	수도권일보	8,657	2,721
서울경제	85,004	52,147	선경일보	2,300	651
전자신문	62,198	49,464	대한투데이	1,000	497
머니투데이	81,436	48,211	국방일보	150,000	-
내일신문	59,547	39,364	이데일리	55,058	-

※ 출처 | 한국ABC협회(www.kabc.or.kr), 2011년 1월~12월 인증부수

※ 용어설명 | 1. 발행부수 : 신문인쇄시 운전기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인 파지를 제외한 배달 및 판매 가능한 부수
2. 유료부수 : 지국 및 가판업자가 구독자에게 판매한 부수

수용행태를 파악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매체의 영향력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온·오프라인에서의 매체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해 발행 및 유가부수는 물론 웹사이트 방문자 수, 앱 사용량, SNS계정 가입자 수 등 세세한 내용의 독자파일을 통합하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5대 신문 가운데 하나인 USA Today를 비롯해 National Geographic, Tribune Media Group, 영국의 The Economist 등 많은 매체사들이 통합 ABC보고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ABC협회도 작년 7월부터 페이지 태깅방식의 웹·모바일 공사를 시작하였다. 현재 19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매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온

라인, 오프라인, 독자프로파일을 포함한 ‘통합오디언스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춘 적절한 보완과 변화라고 생각한다.

미디어의 환경 변화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인쇄매체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분석과 적용을 외면할 수 없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신문의 발행·유료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매체사들은 통합오디언스 측정과 공개를 통해 각사의 강점과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광고요금체계가 확립될 때 독자와 광고주의 신뢰 확보는 물론, 광고효과에 기반한 광고 증가와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